

전 남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아슬아슬”

법정부적 민생대책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일환으로 저소득층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농촌실정과 법적인 검토가 우선 해결돼야한다는 여론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기존 추진중인 쓰레기 줍기와 풀베기 등 단순 취로 사업을 완전 폐지하고 친서민 및 생산적 사업으로 전환, 16개 사업을 수립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일선 자치단체에 통보했다.

16개 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석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비롯해 주거환경 취약지역 동네마당 조성, 달동네 계단도로 환경개선 사업, 홀로 사는 노인 방문 도우미 파견 사업 등 '친서민'적인 내용 중심으로 짜여있다. 희망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의 일자

희망근로 프로젝트 고령자들 해체작업 투입

석면 성분 투성이... 폐기 전문 인력 없어 고민

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정부사업이다.

이 가운데 저소득층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합평군 등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평군의 경우 희망근로사업 참여

자의 60% 이상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노후 슬레이트 지붕개량작업시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인체에 해로운 석면 등을 처리할 전문 기술인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기술공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환경성 검토가 우선 시행된 후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슬레이트 등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석면은 장기간 노출되면 악성종괴종 등 다양한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및 개량하려면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전문 등록업체에 의뢰해 석면 해체신고를 한 후 해체해야하며,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업체에 처리를 해야 하고,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합평군 관계자는 “지금의 사업은 희망근로사업으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다”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슬레이트 지붕개량 희망자에 한해 동의를 얻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땅끝 전망대의 여름'

'제3회 땅끝 해남 전국 사진 공모전'에서 해남 천기철(50)씨의 작품 '땅끝 전망대의 여름'이 금상의 영예를 안았다. 군은 당선작을 작품집으로 발간하고 관광객 내 책자와 해남을 알리는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 제공>

해남 우리밀·유색보리 대체작목 재배

2012년 보리수매제도 폐지... 군, 2천325ha 추진

“해남 들녘이 색(色)다른 보리로 출렁이게 하겠다”
“보리재배 면적 전국 1위인 해남군은 2012년 보리 수매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대체작목으로 우리 밀 2천100ha와 유색 보리 225ha(유색보리 190ha, 유색밀 35ha) 재배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군은 앞서 우리 밀 전량을 ㈜말다원과 계약재배한 데 이어 유색보리도 영농조합법인 '한맥'과 계약재배해 맥주 보리 40kg 1등급 3만5천원에 판매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예상된다.
유색 보리는 일반보리보다 맛과 향이 뛰어나고 소화도 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저수정 쌀쌀보리는 기능성 식품으로 당뇨병과 대장암 예방에 좋은 뿐 아니라 '베타글루칸'(β -glucan) 함량이 높고, 검정보리는 검정콩보다 4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anthocyanin)을 함유해 항산화 효과가 높다.
한편 해남군의 맥주보리 재배면적은 3천455ha로 전국(1만6천890ha)의 20.5%를 차지하고 있다. /해남=박희성기자 dia@

배추 가공식품 개발 농가소득 증진·농민소득

배추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식품이 개발됐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은 매년 가격폭등·폭락과 같은 수급 불안정이 반복되는 배추의 소비활성화를 위해 최근 국수, 빵, 쿠키 등 가공식품 개발에 성공했다.

연구진은 일반농가에 널리 보급된 고추 건조기를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의 처리를 통해 건조배추를 만든 후 분말화해 배추를 이용한 가공식품을 개발했다.

건조배추는 29~35%의 식이섬유를 비롯해 '글루코시놀레이트' 등이 함유돼 있어 다이어트, 변비예방, 혈압저하, 대장암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 농업기술원 이우석 박사는 “어린이들에게 배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린이용 간식개발에 더욱 힘을 쏟겠다”라며 “나아가 배추에 다양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를 쉽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산업화를 통해 배추가 다양한 식품소재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

‘공재의 삶과 그림세계’

해남 문인화가 윤두서 문화제 개최

‘조선 후기 3재’로 불렸던 문인화가 공재(恭齋) 윤두서(1668~1715)의 예술적 가치를 되살리는 ‘공재 문화제’가 해남에서 열린다.

15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해남지부(지부장 이병재)에 따르면 공재 문화제는 오는 18일 공재의 작품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명지대 이태호(미술사학과) 교수를 초청, ‘공재의 삶과 그림세계’라는 주제의 학술강연을 시작으로 막이 오른다.

20일에는 현산면 백포리 윤두서 고택을 출발해 신방저수지와 고현·덕흥리·오도재·대흥사를 거쳐 해남읍 연동 고산 윤선도 유적지에 이르는 ‘역사의 길 걷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26일에는 공재 고택에서 전시회와 체험마당, 콘서트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열린다.

예총 해남지부 관계자는 “조선의 천재 화가 윤두서의 예술적 가치를 현대의 문화적 감수성으로



되살려 자연의 생명력과 지역의 전통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자 문화제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성기자 dia@

보성, 녹차고추가루 본격 생산

올어면에 가공공장 준공... 하루 1t 규모

보성 특산물인 ‘녹차고추’를 이용한 고추가루 가공공장이 들어섰다.

보성군은 최근 올어면 양양리에서 정종해 군수와 각급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차 고추가루 가공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된 녹차 고추가루 가공공장은 2007년부터 사업비 2억2천만 원을 들여 부지면적 1천8㎡, 전체면적 2천257㎡ 규모로 지어져 하루 1t

의 고추가루를 생산할 계획이다. 친환경재제 8종, 고추 전용세척기 17대, 미생물배양기 3대, 고추가루 가공시설 등을 갖췄다.

올어 녹차고추작목반은 그동안 건 고추를 주로 판매해왔으나 요즘 소비자들이 고추가루를 더 선호함에 따라 녹차 고추가루 생산에 나섰다.

보성 올어·복내면에서 생산되는 ‘녹차고추’는 녹차 추출액을 고추재

배 생육시기에 주기적으로 살포, 고추생육을 촉진해 과육이 좋고 촉진과 흰가루병 등 병충해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종해 군수는 “품질 좋고 깨끗한 녹차 건조추로 고추가루를 생산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면 소비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 올어 녹차고추 작목반(114 농가)은 22.8ha에서 연간 100t의 녹차 건조추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60t은 건조추로, 40t은 녹차 고추가루로 판매해 6억4천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이주여성, 방과 후 영어교사로

합평군-호남대 양성 교육

합평군이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과 손잡고 결혼 이주여성을 방과 후 영어교사로 양성한다.

합평군은 15일 군 평생학습장에서 ‘이주여성 방과후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 개강식을 갖고 본격 교육에 들어갔다. 이번 프로그램은 도·농간 교육환경 격차 해소 차원에서 지역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원어민 강사를 양성하고 결혼 이주여성에게 취업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정착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마련됐다.

호남대 평생교육원이 시행하는 이번 영어교사 양성 프로그램에는 영어구사가 가능한 필리핀 이주여성 15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5주간에 걸쳐 호남대 평생교육원 TESOL아카데미의

위탁 운영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을 받는다.
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나서는 개인별 능력 평가를 통해 최종 우수 강사를 선발, 내년부터 합평교육청과 협조해 방과후 학교 영어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캐나다 현지 유명 교수법 등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실기 위주의 영어 교수법을 통해 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 인력 양성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석형 합평군수는 “이번 교육과정은 영어에 국한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일본어, 중국어권으로 확대해 군민의 외국어 능력 배양과 지역 내 다문화 이주여성의 사회참여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합평=황은희기자 hwang@

마늘 재해보험 시범판매

농협전남본부 23일까지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5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고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 중 마늘품목에 대해 시범 판매한다.

대상 품종은 ‘남도’와 ‘대서’ 마늘로 이 지역에서 마늘을 1천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면적은 1천㎡ 단위로 가입할 수 있다. 보장 범위는 종합 위험방식으로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병해, 한해(旱害), 설해(雪害) 등이며 농어업 재해대책법이 인정하는 자연 발생적 재해다. 보험료는 정부가 절반을 보조하고 전남도와 시군에서 30%를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이 마늘 농작물재해보험은 3년간 시범 기간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tlee@

구서면농협 | 새마을사업본부 | 새마을사업본부 | 새마을사업본부 | 새마을사업본부

두번 슬프게 하지 앙갚습니다.

프리드

구분	비율	비율	비율
보상금 지급	95%	95%	95%
보상금 지급	95%	95%	95%
보상금 지급	95%	95%	95%

인대중앙상조 ☎ 1566-4499